

여섯째주; 성령 충만

오늘은 기본 신학 여섯째 주 성령 충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으십시오.

엡:5:18 술취하지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가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중에서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상중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고 했습니다.

이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것-성령을 선물로서 충만히 받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다른 축복은 모두 부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안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 즉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에 보니 “술취하지 말라” 고 했습니다. 술취한 사람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술이 지배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성령님이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지배합니까?

자기가 지배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근본 개념이 무엇이나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도 자기 부인이 근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이며, 성령님께서 그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사람이며, 이 지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살아 갑니다.

I. 성령 충만의 본질

성령 충만은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리시는 삼위 일체의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 성령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애의 제 3 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결의 영

롬 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And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with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Romans 1:4)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죄와 세상적인 것에서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죄와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리의 영

요 16:13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Howbei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is come,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for he shall not speak of himself; but whatsoever he shall hear, [that] shall he speak: and he will shew you things to come. (John 16:13)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 : 29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Of how much sorer punishment, suppose ye, shall he be thought worthy, who hath trodden under foot the Son of God, and hath counted the blood of the covenant,

wherewith he was sanctified, an unholy thing, and hath done despite unto the Spirit of grace?
(Hebrews 10:29)

은혜는 예수님이 은혜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은혜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생명의 영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 였음이라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Romans 8:2)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주기시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26 에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 :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But when the Comforter is come, whom I will send unto you from the Father, even the Spirit of truth, which proceedeth from the Father, **he shall testify of me.**

성령님을 ‘그(He)’ 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4:16 에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And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sha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 ever;)”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 :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또다른'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Allos 를 번역한 것으로 '똑같은 다른 하나' 를 의미할 때 쓰는 말(Another) 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과 인격상, 본질상, 똑같은 다른 예수님을 보낸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똑같은 다른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 분의 지배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인격적 지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 년전에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그와 똑같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간의 교제의 수단은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하신다.

요한복음 14 :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 :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 16:13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인격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말은,

1). **특별계시** :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님을 깨닫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셔서(요 14:26 18:20). 예수님을 알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 :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 말씀이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합니다(벧후 2:4).

베드로후서 1: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3. 말씀이 우리의 생활 원리가 되게 합니다(마 7:24).

마태복음 7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인격과 삶을 지배하는 성령님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

성령님과 우리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의 관계로서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신 후 아담에게 그것에 대한 관리권을 아담에게 주시며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그러나 보통 종이 아니라 주인의 살림 제반사를 맡아 관리하는 종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다음에 주인을 위하여 스스로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한 말의 의미입니다.

신약의 두드러진 특징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가 인격적이지, **물리적 지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 지배가 아닌 물리적 지배의 개념이 성령님을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5. 그러면 성령님을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오늘날 성령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성령님을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성령님을 인격적 교제의 대상이 아닌, Physical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말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 자꾸 넘어지려 한다든지, 몸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자꾸 뜨거워 지려고 하는 것등입니다. 이런 감각적 체험을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체험과 성령을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아야 하고, 은사도 체험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믿음의 강화와 인격적 교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Physical 체험은 전 신앙생활에서 항상 자주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항상 있는 것일 줄 알고, 자꾸 그런 경험을 하려고 추구하려 하는 것이 성령을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것이 전부인양 자꾸 추구할 때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장성한 신자는 이런 육체적, 감정적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II.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가?

1. 지속적인 성령 충만 의 의미

행 6:5 우리가 ○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행 11: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온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이 구절들에서 성령 충만은 항상 지속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전 인격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속사람이 옛사람을 지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옛사람이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시 23).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고난과 실패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산다는 것을 성령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후 1:8-10)”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자신의 왕권을 내놓고, 성령이 100% 왕권을 행사할 때, 속사람이 100% 왕권을 행사할 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계속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속적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옛사람의 죽음이 없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2. 일시적 충만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체험이 지속적이 아니고, 어떤 때는 충만했다가 약화되고 다시 강화되고 하는 단절적인 일시적 충만함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힘을 모아 기도하는 데 회개의 눈물이 복바쳐 오르고, 방언이 터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진동이 오며,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있은 후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그 충만했던 기쁨 평안은 사라져 버리고, 후에는 충만했던 추억만 남아 있게 되고, 마음은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이럴 때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충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 충만을 반복하면서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들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린 아이가 단번에서서 일평생 서서 다니는 아이를 보았습니까?

일시적 반복을 반복한 후에 지속적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시적 충만이 없으면 지속적 충만도 없다는 것이비다.

일시적 충만을 반복하다가 지속적 성령충만으로 갑니다.

이렇게 일시적 충만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 때문입니다.

이미 배웠듯이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은 독립성과 무의탁성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이 타락한 옛사람의 근성은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던 옛 습관에 따라 살도록 자꾸 잡아 끕니다. 우리가 일시적 충만함을 받았다가 다시 마음이 답답해지고 켄켄해지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성령님께서 왕의 위치에서 점점 밀려나시게 되고 이 옛사람이 다시 자신의 인격을 지배해오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주신 기쁨 감격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처리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흘리신 대속의 십자가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는 믿음입니다. (롬 6 장)

롬 6:6 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갈 2:20)” 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던 옛사람이 죽고, 새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